

어촌 청소년 뉴질랜드 현지 어학연수 참여 위해 출국

- 한-뉴 FTA 연계 현지 중고교 정규수업 참여 등 기회 제공

해양수산부(장관 강도형)는 한-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(FTA) 수산협력사업(이하 '한-뉴 수산협력사업')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「2024년도 어촌 청소년 현지 어학연수*」 사업의 참가자들이 7월 19일 뉴질랜드로 출국한다고 밝혔다. 이번 연수는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뉴질랜드 웰링턴 인근 지역의 중고등학교에서 4주간 진행된다.

* 7. 22. ~ 8. 16.(4주간) / 중2 ~ 고2 청소년 총 16명

한-뉴 수산협력사업은 한-뉴질랜드 FTA 체결('15.12.)에 따라 2016년부터 어촌 미래세대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시작되었다. 그 중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어촌지역 중·고등학생에게 어학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9년 이후 코로나-19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올해 재개된다.

이번에는 총 71명의 어촌 청소년*들이 지원하여 추첨을 통해 최종 16명이 선발되었다. 선발된 어학연수 참가자들은 뉴질랜드 학교의 정규교과 과정에 참여하고 현지 홈스테이 가정에 머무르며 글로벌 문화 체험의 기회도 제공받을 예정이다.

* 어촌 지역에 1년이상 거주(주민등록등본 기준)하고 있는 어업인 자녀(중2~고2)로서 영어 강의수강 기준을 충족하고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어촌의 미래 세대인 어업인 자녀들을 위한 한-뉴 어촌 청소년 현지 어학연수가 재개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”면서 “시장개방과 기후변화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 어업인과 가족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국제협력정책관	책임자	과 장	김병구 (044-200-5380)
	통상무역협력과	담당자	사무관	조문래 (044-200-5383)

참고1

한-뉴 자유무역협정(FTA) 수산협력사업 및 어학연수 개요

□ 한-뉴 수산협력사업

- 한-뉴 FTA 농림수산협력 약정에 따라 농축수산업 피해보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양국의 농어촌·농어업 인적역량과 기술협력 강화 사업*(16년~)
- * ①어촌 청소년 어학연수, ②수산계 대학생 훈련연수, ③전문가 훈련·연구 등

□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

- 어업인 자녀 대상* 영어교육 및 뉴질랜드 문화 체험 기회 제공**
- * 어촌 지역에 1년이상 거주(주민등록등본 기준)하고 있는 어업인 자녀(중2~고2)로서 영어 강의수강 기준을 충족하고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
- ** 뉴질랜드 현지 중고등학교 정규교과 과정 참여(4주간), 견학 프로그램(수시) 등

□ 선발방식

- 학교장 추천 → 접수 → 서류평가 → 추첨 → 합격자 발표

<어학연수 선발 추진경과>

구 분	일 시	비 고	최종인원
공고 및 접수, 홍보	5.14~6.7	어촌청소년 71명 지원	71명
서류전형	6.10~13	대상자 71명	
서류합격자 발표	6.14	대상자 71명중 70명 합격	70명
추천 및 최종합격자 발표	6.21	공정추천 전문업체 위탁	16명
오리엔테이션	7.13	출국 준비사항, 학교 교육과정, 생활문화 및 안전관리 등 안내	
출국	7.19		

□ 향후계획

- 출국(7.19) 및 현지연수(7.22~8.16)

